

향기로운 예물

기업 085-056206-04-111(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주정, 주일, 절기 헌금(이름/헌금종류 예 홍길동주정, 홍길동성탄)

☞ 십일조헌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강준식(김정연B) 김선희 김순석(임영득) 김현구(서재희) 백성현(안지영) 송순량 안금자 오영순 유현호(이영미)
문영원(이영희) 이상희 이옥남 이종문 정기성(심순옥) 정상래 정영심 정옥순 채만기(장은주) 천세력(염영분)
최상길(이미향) 최성현 최정규(김미영) 황영옥

☞ 선교헌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경엽(손정아) 김근봉 김선희 김태한 박권재(송영숙) 방현욱(신영신) 백성현(안지영) 서재희(김현구) 안금자
안지영(백성현) 윤승환(민국희) 이경자(주경덕) 이종문 임영득(김순석) 정기성(심순옥) 정옥순 천세력(염영분)
황영옥

☞ 감사헌금 기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정대진(노윤경) 이필래 김병울(이영숙) 김정연B(강준식) 김준하 김현숙(송형기) 김준희 박순자(이동수)
박은숙(정양학) 방석태(차옥자) 서재희(김현구) 석형기(이희순B) 송다해 송형기(김현숙) 염영분(천세력)
이미자 이월숙 이종문 장성자 전순봉 채만기(장은주) 채영엽 천영란 최성현 무 명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강은미 김민서 김민성 김민준 김아민 김아란 김준구 민국희 박민서 박서광 박순자 박준홍 박복순 서로하
양영옥 양일석 이강우 이경자 이기자 이노율 이미자 이상미 이상희 이소은 이은혜 이아란 이옥남 주성택 최귀남
최봉순 최선미 하세헌 홍은민 홍준민 황영옥 무 명

☞ 월정헌금

주간 성경연구

22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사무엘하 23장 1절 ~ 12절

주 일	사무엘하 23장 1절 ~ 12절
월요일	사무엘하 23장 13절 ~ 39절 목요일 디 도 서 1장 1절 ~ 16절
화요일	사무엘하 24장 1절 ~ 14절 금요일 디 도 서 2장 1절 ~ 15절
수요일	사무엘하 24장 15절 ~ 25절 토요일 디 도 서 3장 1절 ~ 15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윤조준
시무장로	강영성 김병울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재 최성현 윤영준 박종삼 최상길
은퇴장로	방현욱 장영원 문영원 이일로 천세력 방석태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부 목 사 정대진
	전 도 사 이필래
	교육전도사 김선희 김운주
찬양대	지 위 자 할 렐 루 야 : 김한나 호 산 나 : 시은 · 에 멘 : 최원지 엔 젤 :
	반 주 자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김민지 하유리 김미희 최유경 이상희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룻 김민지
선교사	솔 리 스톨 김안나 이수경
	태 국 : 김정숙 수 리 남 : 안석열 이성옥 미 국 : 김다니엘 대 국 : 최희희 이 집 트 : 김진숙 A X 국 : 김해월 A X 국 : 이분옥 모 잠 비 크 : 홍두표 김순영
	태 국 : 박영성 정세미 태 국 : 박경환 이순연 맥 시 코 : 김홍기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교회, 줄거운교회, 가나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영등포시찰회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서울남노회 미래 자립위원회.

2023. 05. 21.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율기 25장 1~6절

설교: 이진우 목사

처음 율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는 중이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왜 이런 질병이 전 세계에 퍼져 팬데믹 현상까지 가져오게 되었나? 왜 하나님은 이러한 질병을 통해 많은 자들에게 고난의 시간을 겪게 하시는가에 대한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는 코로나19라는 엔데믹으로 간주하고 회복의 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각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삶에 정답을 제시하고 우리로 바로 알고 깨달아 더욱 믿음에 유익을 줍니다. 그렇기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어 우리의 모든 삶에 음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지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5장에 들어오면서 밧당은 자신들이 더 이상 음을 선택하거나 굴복시킬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이야기들을 종합해 결론을 내립니다. 이처럼 세상은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 과학과 철학 등, 수많은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때로 믿은 자들을 굴복시키려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옳은 듯합니다. 그래서 믿은 자들도 그들의 말에 현혹되고 미혹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때문에 성도들은 더욱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로 분별하며 더욱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밧당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하면서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길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밧당의 이러한 주장은 인간의 잘못된 지식일 뿐입니다. 밧당은,

1. 인간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밧당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완전한 주권과 위엄을 갖추셨으며 평화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기에 감히 대항할 자가 없습니다. 밧당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동시에 인간의 보잘것없음을 나열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이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인간은 구더기나 벌레같이 초라한 존재이기에 도저히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인간의 연약함을 부각시키는 밧당의 주장은 피조물이 겸손해야 함을 강조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밧당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는 신실한 사람의 발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시면서도 마음이 상한 사람들과 가까이 계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밧당은 음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계속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음이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것을 오만과 교만함의 증거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죄와 연약함을 지적하면서 “너 역시 초라한 죄인일 뿐이야.” 라고 음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사랑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내려 주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밧당과 같이 죄인들을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요, 부족한 자요, 죽을 자인,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사랑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아버지 사랑을 전하며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2.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책입니다. 밧당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한 없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들의 양심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께 자녀와 같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밧당은 인간을 구더기 벌레에 비유하면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죄인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열어 주신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구원받길 원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러한 구원의 길을 두고도 밧당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불행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음은 친구들의 끊임없는 정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리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음의 태도가 친구들보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조물의 연약함에 사로잡혀 죄인의 태도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수고와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든지, 우리를 정죄하고 저 고통과 고난으로 밀어 넣으며 수많은 대적이 우리를 에워싸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백성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 의롭게 여겨 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려 주셨기에,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한량없는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SINCE 1975

No. 49 - 22

2023. 05.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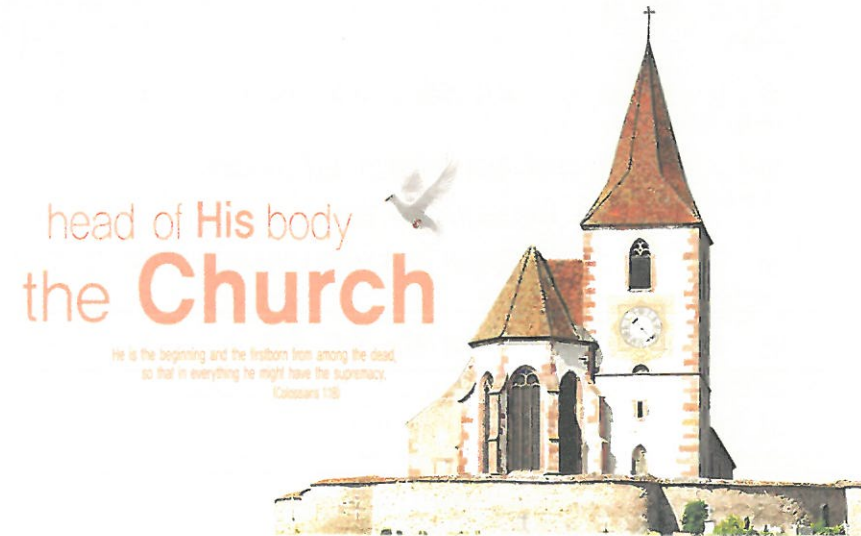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회복되어 성하더라” (마태복음 12장 13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 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흐르는 시내
Flowing streams
(아가 4:15)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진우
Yee, Jin Woo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 스: 2689-1230
- 홈페이지: www.sunghyeon.or.kr

오전예배

성령강림주일

[1부] 오전 7시

[2부] 오전 10시

[3부] 오전 11시 30분

목도

(Silent Prayer)

사회: 박 종 삼 장 로

인도: 이 진 우 목 사

인도: 이 진 우 목 사

할렐루아찬양대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갈 이

(The confession of the Apostles Creed)

찬양

찬송가 183(통172)장

다 갈 이

(Praise)

빈 들에 마른 풀같이

대 표 기 도

[1부]장운주집사

(Prayer)

[2부]김병율장로

[3부]박종삼장로

성 경 봉 독

욥기 26장 1~14절[구약p.785]

인 도 자

(Scripture)

찬양

[1,2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찬송가200장]

다 갈 이

(Anthem)

[3부] 성령이여 내 맘에[Philip Kern]

할렐루아찬양대

설교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진 우 목 사

(Sermon)

헌 금 봉 헌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다 갈 이

(Offering)

새 신 자 환 영

다 갈 이

(Introduce new comer)

봉 헌 기 도

이 진 우 목 사

(Offering Prayer)

교 회 소 식

이 진 우 목 사

(Announcement)

찬양

찬송가 384(통434)장

다 갈 이

(Praise)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축도

이 진 우 목 사

(Benediction)

예 배 후 찬 양

[1,2부] 찬송가 351(통388)장 믿는 사람들은 다 갈 이

(Marching on Praise)

[3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 우리 교회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합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핸드폰은 예배시 꼭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예배

브라카와 함께 하는 찬양예배

오후 3시

인도: 이 진 우 목 사

찬양

하나님께 찬양을

다 갈 이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갈 이

찬양

다 갈 이

기 도

김 경 엽 집 사

찬양

브 라 카 찬 양 단

광 고

인 도 자

성 경 봉 독

갈라디아서 1장 1~10절[신약p.302]

인 도 자

설교

다른 복음의 미혹

이 진 우 목 사

찬양

다 갈 이

축도

이 진 우 목 사

수요기도회

오후 7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찬양

다 갈 이

성 경 봉 독

고린도전서 13장 1~7절[신약p.278]

인 도 자

설교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이 진 우 목 사

예배시간

주일1부예배	주 일 오전 7:00 분당	영 아 유 치 부	주 일 오전 10:00 제1교육관
주일2부예배	주 일 오전 10:00 분당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0:00 유초등부실
주일3부예배	주 일 오전 11:30 분당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10:00 로템나무
주일찬양예배	주 일 오후 3:00 분당	청 년 부	주 일 오후 4:00 청년부실
수 요 기 도 회	수요일 오후 7:30 분당	소 망 부	토요일 오전 10:30 분당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오후 9:00 분당	전 도 특 공 대	목요일 오후 2:00 교회식당
새 벽 기 도 회	월~금 오전 5:00 분당		

교회소식

◎ 광고

● [성령강림주일/브라카와 함께 하는 찬양예배]
오늘(28일)은 “성령강림주일”입니다. 준비된 봉투에 정성껏 예물을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찬양 예배는 브라카와 함께 하는 찬양 예배로 합니다.

● [교회설립 48주년 설립기념 주일 헌금]
교회설립 48주년 설립기념 주일 헌금을 5월 한 달간 합니다. 이번 설립기념 주일 헌금은 태국 롬프라편교회(박영성 선교사)에 전액 전달합니다. 기도하시며 자유롭게 설립기념 주일 헌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 대청소]
6월 11일 주일 찬양 예배 후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제직 및 각 남·여전도회 회원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동원주일]
6월 25일(주일)을 총동원 주일로 합니다. 다음 주(4일) 총동원주일 초청자 작정을 하오니 한 주간 기도하시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도특공대 전도]
전도특공대와 전도에 동참하시고자 하시는 성도님들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까지 교회 식당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월 행사 안내]
6월 4일(주일) 총동원주일 작성
11일(주일) 교회 대청소(찬양예배 후)
18일(주일) 드보라여전도회 헌신예배(찬양예배)
25일(주일) 총동원주일

◎ 모임

이 번 주	다 음 주

◎ 환영합니다

- 23-07 탁영준 성도(사랑1 교척11/요한남전도회) 현영란 집사 인도.

- 23-08 유미진 성도(사랑1 교척11/마리아여전도회) 현영란 집사 인도.

◎ 교회를 섬기는 분

	성 단	차	종 식	주방봉사	교회청소
이번주			안금자 권사	밀음 등촌 부천	에스더 여전도회
떡	강영수, 김옥자 성도 (구순九旬)				
다음주	고유림 집사		정기성 장로 심순옥 권사 문영원 장로 이명희 권사	밀음 소망1 목동 일산 교척1	루디아 여전도회

순서	1 부	2 부	3 부	찬 양 예 배	
6월	사회/인도	기 도	기 도	기도	사회/인도 기 도
1주(04일)	강영성 장로	홍정훈 집사	최기훈 장로	강영성 장로	김병율 장로 채만기 집사
2주(11일)	담 임 목 사	김종진 집사	배경철 장로	김병율 장로	강영성 장로 최정규 집사
3주(18일)	배경철 장로	김형국 집사	임만순 장로	배경철 장로	최기훈 장로 배속자 권사
4주(25일)	최기훈 장로	방원식 집사	박권재 장로	최기훈 장로	담 임 목 사 오동호 집사
예 배 안 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